

학교법인 백화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8학년도 제1차)

회의소집통보일시	2017. 12. 2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시: 2018년 1월 5일 (금) 오전 11시
2. 회의장소: 백화여자고등학교 이사장실
3. 참석이사(5명): 김기현, 김두환, 서문후, 서문백주, 최낙삼
4. 불참이사(2명): 김호길, 서정모
5. 토의안건: 가. 교감 해임 건
나. 2018학년도 교장(감)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건
다. 기타 안건

6. 회의내용

임시의장 김두환: 이사회 개회에 앞서 이사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으며, 저에게 위임을 하셨기에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두환: 2018년도 제1차 백화학원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교법인 백화학원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임시의장 김두환: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

간 사 : 전차 회의록 내용은,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으며, 2017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 수정 결의하였으며, 교육용기본재산 멸실신고로 인한 감자보고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으며, 태양광 발전판 설치 건물지붕 임대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다고 보고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전차 회의록 낭독에 의의를 묻다.

이 사 전 원: 이의 없음을 표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전차 회의록 낭독이 이의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제1안건인 현 교감 송창점의 면직 건을 상정하고 설명하게 하다.

간 사 : 학원으로 송부한 학교장 요청서를 낭독하다. 교원 인사과 - 24612(2017.11.23.)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

김두환 김기현 서문백주 서문후 최낙삼

천 공문에 따라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을 위해선 현 교감 송창점을 교감직에서 면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 교감은 교육청 감사담당관-8029(2016.12.05) 2016.10월 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와 감사담당관-6867(2017.10.27) 특정감사 결과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2회 받은 바 있고, 이에 교감 포기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8학년도 원활한 학사운영 및 학생모집을 위해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감 선임이 필요해 요청합니다. 교감 선임 요청 외에도 위와 관련하여 행정실장 유석진 행정주사 김주화가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1월 1일자로 각직에서 면직하였음과 현재 행정대체요원 2명이 행정업무를 대신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김기현 이사님은 다른 이사님들의 이해를 위해 송창점의 교감 포기 각서가 자의에 의한 것인 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김기현 이사 송창점 교감과 통화)

이 사 김기현: 지금 이사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송창점 교감은 자의에 의해 포기각서를 쓰고 상정한 인사위원회 협의록의 위원장이었으며 모든 인사위원들이 동의했으므로 2018학년도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교감 송창점을 교감직에서 면직함에 동의합니다.

이 사 서문 백주: 법령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동의합니다.

이사 서문후 : 동의합니다.

이 사 최낙삼: 이의 없음을 표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임시 의장도 동의하며, 신년도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송창점 현 교감을 교감직에서 2018년 1월 6일자로 면직하고 평교사로 발령함을 선언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제 2안건 2018학년도 교장(감)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건을 상정하고 설명하게 하다.

간 사 :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백화여자고등학교 교장을 교장자격인정 취득후 2017.9.1.일자로 교장으로 우선 임용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24612(2017.11.23.)호로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장(감)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안내 공문에 따라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하여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하고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 한다고 설명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2018학년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설명을 듣고, 원안에 이의를 묻다.

이 사 전 원: 전원 이의 없다고 답하다.

김두환 김기현 서문백주 서문후 최낙삼

임시의장 김두환: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안건 중 2018학년도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건은 원안대로 교장 김영순을 추천 결의함을 선언합니다.

임시의장 김두환: 이어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교장의 요청대로 2018년 사립학교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추천 건을 상정하고 설명하게 하다.

간 사 : 첨부한 학교장 요청서와 인사위원회의 협의록에 명기한 2명의 교감 대상자 지원에 대해 설명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우선 각 후보자의 공모의 변을 듣고 지원서에 대한 이사들의 질의 응답과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함을 선언하다.

공모 및 지원의 변 :

1) 전병선 지원서 요약 발표

동창회 조직 재점검,
지역과의 소통,
교사들의 결속력 만들기,
학교운영 위원회의 활성화

2) 배해남 지원서 요약 발표

창비과 발전 방안
우리 학교 건강 살리는 학교프로젝트(힐링학교 만들기)
졸업생 추수지도 방안
신입생 모집 방안 발표와 응답


임시의장 김두환: 후보 선정에 앞서 학교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학교장의 변 : 두 분 모두 학교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고, 특히 이번 학생 모집에 앞장 서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어느 분과도 호흡을 잘 맞춰 학교 발전에 임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두환: 각 후보자의 자격의 적정 여부와,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다.

이 사 최낙삼: 학생 모집에 두 분이 열심히 임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학교 창작비즈니스과 개설과 군청과의 협약 업무체결 등에서 보여준 업무 능력을 참작할 때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배해남 선생님을 추천한다.

이 사 김기현 : 우리 학교는 인문계 학교인 만큼 입시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두 사람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해 다년간 일해와 부족함이 없지만 국어과에서 30년간의 지도해 온 배해남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본 학원에서 서울대 진학을 시킨 유일한 담임이었다. 학생부에서 다년간 일해 온 경험

김두환 김기현 서문배 (인문계) 

또한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아 배해남을 추천한다.

이 사 서문 후: 투철한 경영 계획 및 교육관을 살펴보아 배해남을 추천한다.

이 사 서문 백주 :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기 부탁하며 교장과 호흡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해 주기 바라며 배해남을 삼청한다.

임시의장 김두환: 재청과 삼청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논의 사항이 있는 지 묻다.

이 사 전원 : 전원 이의 없음을 표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한 교사 배해남을 2018년 1월 6일자로 교감 직무대리로 발령함을 선언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사립학교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로 교장 김영순을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로는 교사 배해남을 선임한다. 위 사람들은 본교 개교 이래 본 학원에서 각자 30여년 간 몸담아 오면서 교육자로서의 학식과 덕망이 높아 교원 자격 검정령 제 23조 제 1항의 자격인 정기준에 합당하며, 교원자격검정령(제 5조, 6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학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임용 시기는 연수가 끝나고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학기(2018.9.1.)에 임용함을 선언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기타 안건으로는 관련 공문 감사담당관-6557(2017.10.16.)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 알림에 따르면 2-2 행·재정상 조치요구 사항으로 학원 관련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법인이 학사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운용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법인이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할 것을 권고함을 선언하다.

임시의장 김두환: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백화학원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8년 1월 5일

이사장: 김호길 불참

이 사: 김기현

이 사: 김두환

이 사: 서정모 불참

이 사: 서문후

이 사: 서문백주

이 사: 최낙삼